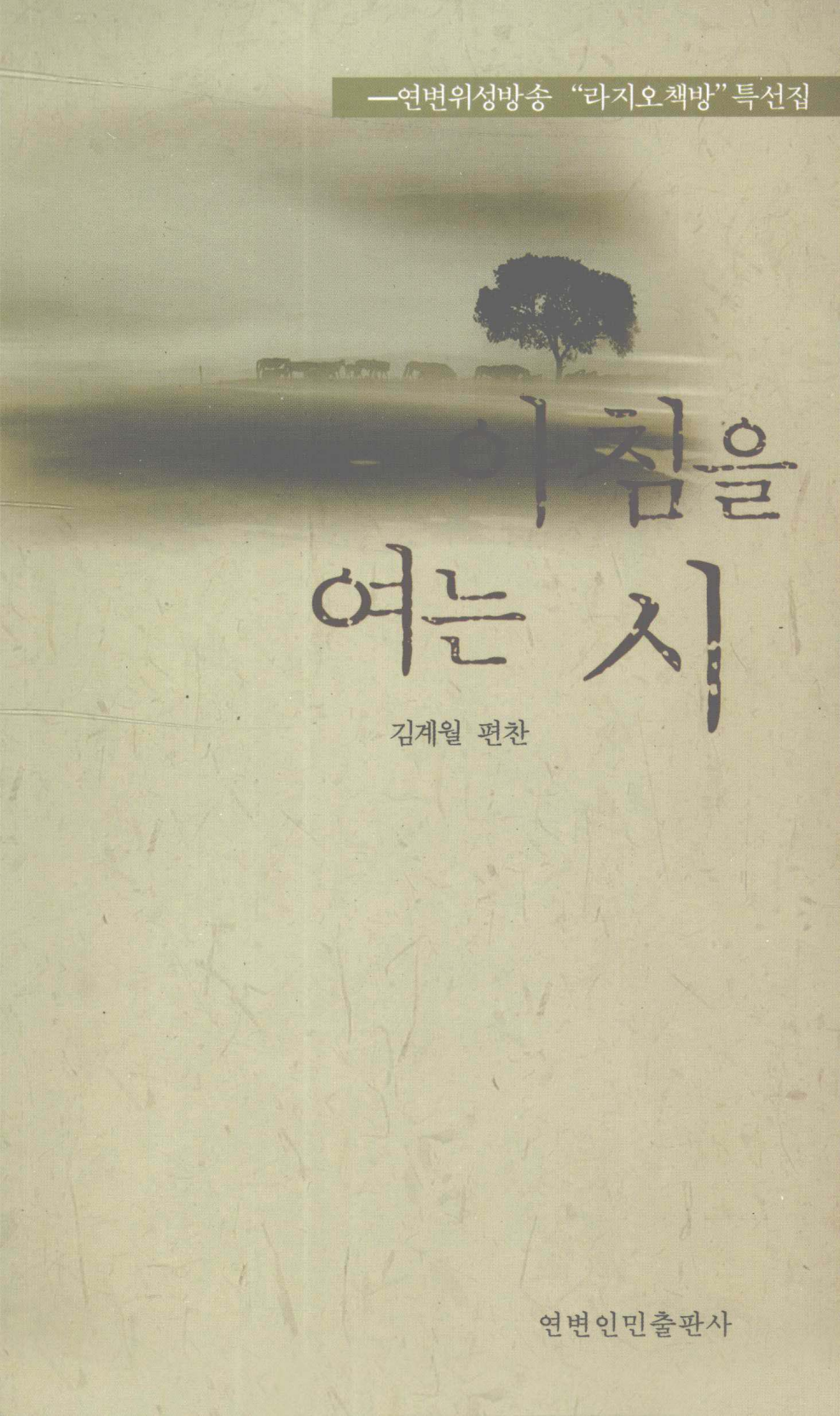


—연변위성방송 “라디오책방” 특선집



이침을 여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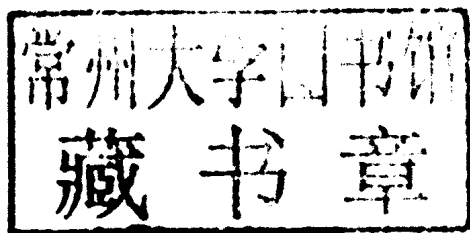
김계월 편찬

연변인민출판사

이침을 여는 시

—연변위성방송 “라디오책방” 특선집

김계월 편찬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金龙吉

责任校对：崔顺兰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敞开清晨的诗：朝鲜文 / 金桂月编. —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 8
ISBN 978-7-5449-1250-1

I. ①敞… II. ①金… III. ①诗歌-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IV. ①I1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68479号

敞开清晨的诗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9.875 字数：28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50-1（民文）

版次：2010年8月第1版

2010年8月第1次印刷

印数：1-500册

定价：3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연변위성방송채널 방송개시 5돐을 맞으면서 “라디오 책방” 일요일코너의 우수프로그램을 추려서 책으로 묶어 내는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프로그램이 수용자들의 환영을 받고 브랜드로 되려면 최고보다도 유일한것이여야 한다는 경영리념은 방송인이라면 다 알고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날마다 만들어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족언어방송으로 말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민족성, 지역성 그리고 시대성과의 융합이 우선이며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각과 패턴으로 만들려는 창의력과 창의적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이른바 차별화와 특색화에서는 방송인들의 방송풍격도 절대 홀시할수 없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라디오책방”이 품위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프로그

람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김계월아나운서의 성숙된 방송풍격과 방송게스트인 석화시인이 갖고있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두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라디오책방”이 전성기를 누릴수 있는 거시적원인은 시대적흐름을 바르게 한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고 독서가 세상을 바꿀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학습형집단, 학습형사회만이 발전할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연변위성방송 “라디오책방”이 계속 코너좌표를 바로잡으면서 독서하는 사람, 독서하는 세상을 만드는 앞장에 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연변인민방송국 국장 김동환

차례

시인과 시	1
윤동주시인과 시 “서시”	13
리옥시인과 《리옥시선집》	26
김철시인과 시집 《황혼의 로맨스》	40
김성휘시인과 장편서사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	52
김경석시인과 시집 《파란 수건》	66
김문희시인과 시 “꽃나무아래에서”	78
김일량시인과 시집 《남자의 피는 술이다》	93
리태학시인과 시조집 《잔설서곡》	108
조민호시인과 시 “해란로 111호”	121
김형효시인과 시집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	136
손순자시인과 시집 《소요산련가》	149

김영일시인과 시 “비오는 날의 노을”	164
한룡운시인과 시 “님의 침묵”	178
리륙사시인과 시 “광야(旷野)”	189
청마 유치환시인과 시 “편지”	202
정지용시인과 시 “향수”	216
식지시인과 시 “미래를 믿어라”	226
림망시인과 시 “주방에서 들리는 물소리”	239
《중한시집》	251
엘리어트시인과 장시 《황무지》	266
보들레르시인과 시집 《악의 꽃》	279
어머님께 바치는 시편	292
편찬을 마치고	307

시인과 시

△ 방송시간: “라디오책방” 2010년 5월 3일

△ 나오는 사람들:

김계월...아나운서(M)

석 화...특별출연자(G)

— 음악 —

M: 안녕하세요? 연변위성방송 “라디오책방”의 김계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을 이루려면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건강해야 하겠죠. 또 이를 위해서는 부단히 영양을 섭취하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만족을 유혹하는 하강의 힘과 정신적인 상승을 추구하는 승화의 힘, 이 두 방향 힘의 평형프로그램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

다. 우리의 감성을 순화해서 령적승화를 이뤄내는것이 바로 예술일진대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시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내는이들을 시인이라고 부르지요. 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어내는 시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인들 자신의 붓끝에서 그려진 그분들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석화선생님을 저희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G: 안녕하십니까?

M: 네, 언제 뵈도 반갑습니다.

G: 반갑습니다.

M: 시로써 이렇게 늘 만나게 되니 반가움이 더해지네요.

G: 네, 그렇지요.

M: 지난 시간에는 뿌쉬킨의 시로 여러분들과 만났었지요.

G: 네, 로씨야의 위대한 시인 뿌쉬킨이지요.

M: 청취자분들께서 뿌쉬킨의 시를 오랜만에 접하고 만났었다고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G: 저한테도 여러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뿌쉬킨의 시를 오랜만에 접하고보니 너무나도 반가웠겠지요.

M: 하긴 그래요. 너무 반기더라구요.

G: 네, 반가울만도 하지요. 특히 그 뿌쉬킨의 명시

M: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G: 이 시는 참 명시중의 명시이지요.

M: 오늘 다시한번 음미해보지요.

G: 네, 부탁드립니다?

— 음악 —

M: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서러워말아라 노여워말아라
울적한 날은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돌아오리니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것이니
모든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일들은 그리우리라

— 음악 —

G: 네, 뿌쉬킨의 명시이지요. “모든것은 순식간에 지나
가고”

M: “지나간 일들은 그리우리라”

G: 우리들의 삶에 소중한 깨달음이라 하겠습니다. 뿌쉬

깁, 로씨야 국민시인이지요. 뿌쉬킨은 이렇게 로씨야인들의 국민적 사상과 감정을 훌륭히 표현하여 로씨야문학 그리고 로씨야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빛낸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받고있지요. 뿌쉬킨시인 스스로도 자기의 이런 문학적작업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시인은 자기 작품들을 통하여 여러편이나 시인에 대한 찬송을 아끼지 않았습디다. 이를테면 “시인인 벗에게”, “서적상과 시인의 대화”, “예언자”, “시인”, “시인에게”, “시인과 군중” 그리고 “메아리” 등등 작품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뿌쉬킨의 “기념비”를 감상하였습니다만 그 불후의 명작을 다시 감상해볼까요?

M: 네, 좋습니다.

— 음악 —

기념비

뿌쉬킨

나는 인공으로가 아닌 나의 기념비를 세웠노니
그리로는 인민의 발길 그칠 새 없으리라
그 탑은 굴함없는 머리 쳐들고 창공높이 솟으리
저 알렉산드르탑보다 더 높이

아니, 나는 죽지 않으리라—
 거룩한 거문고줄에 올린
 나의 시혼 육체보다 길이 살아 불멸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영광에 싸이리라—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시인이 살아있다면

나의 명성은 위대한 온 루씨에 퍼져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민 내 이름을 부르리라
 자부심 많은 슬라브후손도 핀인도
 지금은 미개한 퉁그쓰도초원의 벚 깔미끄도

나는 오래동안 인민의 사랑을 받으리라
 내 거문고로써 어진 감정 깨우쳤고
 이 가혹한 시대에 자유를 찬양했으며
 억눌린 사람들 동정하라 웨쳤으며

오, 나의 거문고여 신의 뜻에 순종하라
 모욕을 두려워말고 영예를 탐치 말라
 칭송과 비방을 랭정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미우한자와 다투지 말라

— 음악 —

G: 네, “기념비”, 뿌쉬킨의 위대한 작품이지요.

M: 그렇네요. 지난 시간에도 정말 감명 깊게 읊었고 감

상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음미해보니 더욱 새로와집니다.

G: 바로 이 땅에 살아남은 시인들은 최소한 정치권력자들보다는 존중받으며 그들의 시는 우리 삶이 던져진 모든 곳에서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운 선물로 랑송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지요. 이것이 바로 감성의 힘이라고 하겠지요. 감성이란 “느끼는 성질”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수한 감정적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느낄수 있도록 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대상으로부터 감각되고 지각되어 하나의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인식능력이 바로 감성이지요. 따라서 감성은 리성과 함께 우리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있는 두개의 큰 기둥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인류력사를 살펴보면 이 감성의 기능이나 중요성보다는 리성의 힘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에 놓여있었던것을 알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적사고와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사회의 그토록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것이 바로 리성의 힘이였지요. 이런만큼 리성의 막강한 능력과 비교해볼 때 감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성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감성지수”, “감성교육” 등 감성바람이 불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길수 있는것은 우리의 사회가 산업화, 기계화, 정보화의 시대로부터 한층 더 도약하여 창조화의 시대로 변화하고있기때문입니다. 창조화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개인의 창조성이며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감성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조성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지요. 이러한 감성의 창조성에서 가장 큰 구실을 하는것이 바로 학문이며 그중에서도 “시”라고 하겠습니다. 시창작의 바탕은 감성이라고 할수 있지요. 우리는 결코 논리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로 시를 창작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사물에 닿아서 시인의 가슴에 구체적인 감정과 느낌을 생생히 불러일으킬수 있는 투명한 감성이 시를 낳는것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고 가장 죄 없는 사람이 시인이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러나 시인은 현실 이상의것을 보고 그 이상의것을 노래하는 선지자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산업사회에서 시인은 소외될수 밖에 없었지요. 현실에 돌아왔을 때 시인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들레르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로 형상하였는데 이 작품 한편 감상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를 부탁드립니다.

— 음악 —

M:

알바트로스

보들레르

자주 배사람들은 장난삼아
거대한 알바트로스를 붙잡는다
바다우를 지치는 배를 시름없는
항해의 동행자인양 뒤쫓는 해조를

바다우에 내려놓자, 이 창공의 왕자는
어색하고 창피스러운 몸짓으로
커다란 흰 날개를 노처럼
가소로이 가엾게도 질질 끄는구나

이 날개 달린 항해자, 그 어색하고 나약함이어!
한때 그토록 멋지던 그가 얼마나 가소롭고 추악한가!
어떤이는 담배대로 부리를 들볶고
어떤이는 절뚝절뚝 날던 불구자 흉내낸다!

시인도 폭풍속을 드나들고 사수(射手)를 비웃는
이 구름우의 왕자 같아라
야유의 소용돌이속에 지상에 류배되니
그 거인의 날개가 걸음조차 방해하네

G: 네, “알바트로스”, 프랑스시인 보들레르가 묘사한 알바트로스는 황새목의 조류로서 우리 말로는 신천옹이라고도 하지요. 이 새는 모든 조류중에서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로서 바람부는 날에는 매우 길고 좁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몇시간 동안이나 하늘에 떠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름우의 왕자 알바트로스는 일단 지상에 내려오면 바보가 되어버리고말지요. 이러한 알바트로스의 형상은 락옌 시인의 상징입니다. 시인은 감옥과도 같은 룩지에서 멀리 벗어나 무한한 바다에 뉘을 맡기는 “자유인”이 되기를 열렬히 갈망하지요. 그러나 배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지상에 내려온 알바트로스를 보게 되고 그 커다란 날개때문에 뒤통거리는 알바트로스의 “가소롭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 무능한 모습이 바로 현실생활에서의 시인의 무능한 모습입니다. “폭풍속을 드나들고 사수(射手)를 비웃는 이 구름우의 왕자”가 일단 땅에 내려오면 너무나 큰 날개가 거치장스러워 잘 걸지도 못하는 새가 됩니다. 시인은 지상에 내려오면 사람들에게 들볶이고 추한 꼴로 걷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각을 보여줍니

다. 바줄에 묶여 퍼덕이는 알바트로스의 긴 날개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인 보들레르의 뇌리속에서 솟구쳐나온 상상력의 힘입니다. 상상력은 시인에게 즉각적인 현실의 대상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안겨줌으로써 시인으로 하여금 다른 세계 즉 관념의 세계와 이 현실의 대상들이 맺고있는 관계를 내부로부터 느끼게 하여줍니다. 이렇게 구성된 예술은 일종의 마법적기능을 지니는데 현실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세계를 동시에 드러내줍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담아낸 작품이 있지요. 바로 리상화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시인에게”입니다. 작품 부탁드립니다.

— 음악 —

M:

시인에게

리상화

한편의 시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그때라야

시인아 너의 존재가

비로소 우주에게 없지 못할 너로 알려질것이다

가뭇든 논가에는 청개구리의 울음이 있어야 하듯